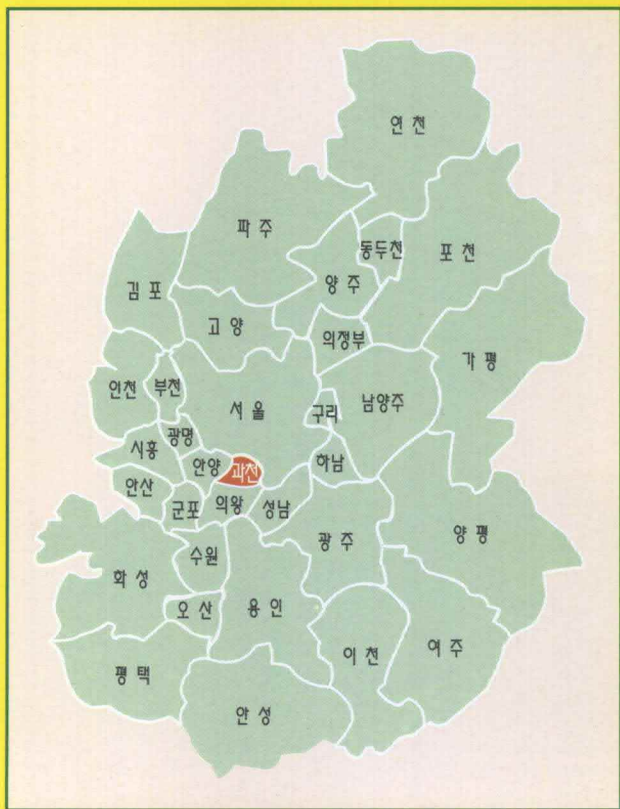


과천시

무동담교놀이

보부상 두렁뽑기 놀이



무동답교놀이

1. 전승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유래 및 예설

조선조 22대 정조대왕은 선친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억울한 죽음을 비통하게 여겨

경기도 화성에 모신 묘소에 성묘하여 선친(先親)의 영(靈)을 위안하고자 하였던바, 정조대왕의 능행거동이 빈번하였으므로 과천사람들이 무동답교놀이를 베풀어 임금을 환영하며 효행을 찬양하였다.

일제시대 이후로 놀이가 중단되었으나 1981년부터 과천에 오래살아온 노인들의 도움으로 다시 재구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과천고유의 또다른 민속놀이인 지신(地



神)밧기, 당나무고사, 선소리놀이, 우물고사, 마당놀이 등이 어우러져 1994년부터 새로운 민속놀이로 발전되었다.

3. 구성 및 줄거리

1) 편성연희(演戲)

악대편성은 호적(날라리)이 한쌍, 장고가 한쌍, 대고(큰북)가 한쌍, 상쇠가 한쌍, 태평소가 한쌍, 소라가 한쌍, 징이 한쌍, 소고(작은북)가 한쌍으로 편성되었으며 무동(舞童)은 동네의 소년 수명을 선발하여 별감(別監), 나장(羅將), 소승(少僧), 팔복(八福)의 역이 각 한사람 여무동(女舞童)이 두사람으로 모두 여섯무동이 연희(演戲)를 한다.

여섯무동 이외에도 밀무동과 왜장녀, 방자, 길잡이 등이 출연하며 이외에도 마을사람들 전체가 어우러져 대동놀이가 된다.

2) 줄거리

1) 당나무고사

선두 길나잡이가 놀이패를 당나무 앞으로 이끌어 횡렬로 서서 정중히 3배를 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제각기 한해의 태평을 빌며 신명난 지신(地神)밧기 놀이가 진행된다.

2) 우물고사

마을의 공동우물을 겹으로 둘러싸고 “비나리”가 “고사덕담”을 하는동안 놀이패들은 하늘에 대고 손을 빌기도 하고 우물에 절을 하며 우물고사를 지내고는 밀무동의 어깨위에 애기무동을 태우고 모동놀이를 하며 “집사” “왜장녀” “양반광대” 등이 어릿광대 놀이를 한다.

3) 다리고사

지신(地神)밧기를 마치고 놀이패들은 다리로 이동하여 제상에 제물을 놓고 촌장(村長)을 중심으로 자리잡은 다음 다리고사를 지내며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한다.

4) 마당놀이

다리고사를 마친 놀이패들은 길나잡이를 선두로 하여 차례로 넓은 마당한가운데서 큰 원을 그리며 신명난 무동마당놀이를 한다.

처음에는 원을 그리기도 하고 엇갈려 돌기도 하며 원을 작게, 크게도 하고 “좌우치기” 등도 선보여 성대한 마당놀이가 이루어 진다.

5) 선소리

마당놀이를 마친 놀이패들은 길나잡이의 인도로 답교에 모여 대형을 이루며, 다리위에는 선소리대들이 모여 놀랑, 앞산타령, 뒷산타령, 잣산타령, 개구리타령 등을 부르며 놀이패들은 흥을 맞춘다.

6) 무동답교놀이

다리위에는 다시 소승무동, 여무동, 별감무동, 나장무동, 팔복무동등이 밀무동의 어깨위에 올라가 좌우치기, 밀치기 마당일체 등의 무동답교놀이를 하며 어릿광대들도 흥을 맞춘다.

7) 뒤풀이

집, 당나무를 돌아서 자연스럽게 무동 답교놀이를 마감하는 뒤풀이를 한다.

보부상 두령뿔기놀이

1. 전승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유래 및 예설

보부상은 우리 한민족이 독특하게 창안한 상업문화의 산물이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

가 1910년 한일합방으로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보부상 세력을 시장으로부터 축출함에 따라 우리의 고유한 傳統行商文化가 뼈아픈 역사의 물거품속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보부상의 생성기원은 고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조직화된 시점은 고려말기와 조선초기로 추정된다.

한양의 남쪽관문 구실을 했던 과천은 삼남 지방의 사람들이 서울을 왕래할 때 당연히



거쳐야 하는 길목이었다.

조선왕조의 운세가 기울어질 무렵인 1896년 7월 정치·사회단체로서 독립협회가 창설되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 비난과 탄핵으로까지 활동영역이 확대되어 보부상이 기반으로 되어있는 황국협회와 대치하였다.

1898년 11월 21일 과천군 吉永洙郡守의 지휘를 받는 수천명의 보부상들이 몽둥이를 들고 독립협회의 연설장을 습격하였다.

고종황제는 독립협회와 황국협회의 요구를 수렴한 후 두 단체의 해체를 명하였다.

보부상들은 1년중 중요한 행사인 접장을 선출하는 의식(보부상 두령뽑기)을 가장 중요한 자체문화로 발전시켜 왔으며 경건하면서도 흥취있는 축제분위기로 진행하였다.

각처에서 모인 보부상들은 질서 정연하게 공문제를 개최하고 투표를 통해 접장을 선출하며 보부상 자체의 규율을 지키지 않는 자는 가차없이 불기를 치고 엄숙한 의식아래 신·구접장의 인계·인수가 이루어 지고 새로 선출된 접장은 1년동안 보부상 조직을 이끌어 간다.

3. 구성 및 줄거리

1) 임소원 처소안내(任所員 處所案内)

각처에서 모인 임소원들이 처소별로 안내되어 숙박을 하고 다음날 행사 준비를 한다.

2) 공문제(公文祭)

보부상의 우두머리인 영위, 반수, 접장이 각각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되어 선대 보부상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3) 권 점(圈点)

앞으로 1년동안 보부상조직을 이끌어갈 접장을 가장 민주적인 방법인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4) 태 형(笞刑)

보부상 조직은 규율이 엄격하여 위반자에게는 가차없이 불기를 치는 장문형문화(丈門刑文化)가 발달되어 있었다.

국중유국(國中有國)의 과정에서 완전한 자치영역이 있으므로 실상 국법적용이 없었다.

5) 전장식(傳掌式)

신구접장간에 사무인계가 이루어지고 공문, 인장, 기물 등 구접장이 보관했던 것을 신 임접장이 보관하게 된다.

6) 연 회(宴會)

모든 행사가 끝나고 신임접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보부상간 화합의 잔치가 성대하게 개최된다.